

## 2) 야곱이 레아, 라헬과 혼인하다 (29:15-30)

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삷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16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8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19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 29:15/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 \* '일을 하다(섬기다)';는 분쟁의 대상이 됨.
  - \* 라반은 자신이 야곱에게 가족으로서 의무가 있으며, 종이 아닌 야곱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함.
  - '네 품삷을 어떻게 할지': '품삷'은 야곱-라반 기사와 나머지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
  - '내게 말하라': 자신의 난처함을 고려해달라는 요청.
- 29:16-17/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라반의 딸들에 대한 중요한 배경 정보를 제시.
  - '언니(더 나이 든)... 아우(더 어린)' 라반이 야곱을 속인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
  - '레아': '암소'와 관련. '라헬': '암양'-라헬의 직업과 어울림.
  - '시력이 약하고':
    - \* 우아한, 사랑스러운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눈에 충기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
    - \*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 받지 못한 원인.
    - \* 약혼한 여인을 포함하여 여인은 눈과 턱을 제외한 면사포를 쓰기 때문에 눈은 여인의 매력에 중요한 부분.
  - '아리따우니': 남녀를 불문하고 '매력있는'. 요셉, 사라 등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
- 29:18-20/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야곱이 동생을 선택한 이유.
  -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작은 딸'을 선택한 것이 라반과 야곱에게 문제가 될 것을 암시.
  - '칠 년을 섬기리이다': 상당한 기간의 노역. 율법은 7년이 지나고 모든 빚을 탕감할 것을 요구.
  -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라반은 자신이 야곱을 선의로 대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
  - '며칠 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향한 야곱의 열정과 속임수의 참담함을 강조.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22 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26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 29:21-22/ '내게 주소서': 통명스러운 주장은 조급함과 불만을 암시.
  - '들어가겠나이다': 혼인 초야를 뜻함. 라반의 기만이 극에 달하는 순간.
  - '라반이... 잔치하고': 신랑은 포도주를 마시고 신부는 면사포를 써야 했음(밤에도).
- 29:23-24/ '레아를... 데려가매 야곱이... 들어가니라':
  - \* '데려가다', '들어가다'는 단어는 모두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
  - 야곱이 처녀인 레아와 동침한 이상 지조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
  - '실바를...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레아와 레아의 대리자인 실바를 통해 여덟 아들을 얻게 될 것을 암시.
- 29:25-27/ '아침에 보니 레아라': \* '그리고 보라. 그녀는 레아!': 야곱의 놀라움을 간결한 구문으로 강조.
  -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 \*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비멜렉에 대한 항의, 하나님의 뱀을 향한 질책, 가인에 대한 꾸짖음.
    - \* 야곱이 에서에게 행한 일에 대한 리브가의 발언 - 야곱의 범죄에 합당한 응답.
    - \* 라반은 장차 야곱에게 같은 불만을 갖게 됨(31:26).

-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속였다(라마)’는 가족, 중, 친구의 개인적인 배신을 서술.
-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라반의 책임 회피.
- ‘칠 일을 채우라’: 잔치가 지속되는 기간.
- ‘그도 네게 주리니’:
  - \* 야곱의 열정적인 라헬 사랑과, 라반의 탐욕이 두 여인과 결혼하는 결과를 만들어 냄 - 율법으로 금지.
  - \* 야곱은 다시 7년을 기다리지 않음으로써 사기당할 가능성을 없애고 라헬을 얻는 것을 보장 받음.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 29:28-30/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합의의 성취.
  - ‘라반이…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원문에서는 ‘라헬’이 앞에 위치하여 실바와는 다르게 묘사
  - 라헬이 레아보다 더 사랑받음을 암시, 빌하는 라헬에게 레아의 실바보다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야곱이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라반의 이중성을 통해 두 번째 아내가 되었음
  -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함으로 그의 형을 ‘또한 아들’로 만든 것에 대한 적절한 응답.
  -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형제간의 질투를 낳는 토양.
  -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두 배로 힘들게 일하며 겪은 어려움.

## 5. 야곱의 자녀 출생(29:31-30:24)

### 1) 레아의 자녀(29:31-35)

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  
 셧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  
 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  
 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 29:31/ ‘여호와께서… 보시고’:
  - \* 레아가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결과. 무시 받는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드러남.
  - \* 레아의 임신으로 자매 간의 경쟁이 시작: 사랑 받는 자-아닌 자, 생식력이 있는 자-아닌 자
  - 이 경쟁의 결과 야곱의 후손의 수가 증가함.
  - ‘사랑 받지 못함’: \* ‘거부됨’, 깊은 증오에서부터 격한 반감까지 폭넓은 감정을 묘사.
  - \* 레아가 아무리 많은 아들을 낳아도 야곱과 화해할 수 없었던 이유.
- 29:32/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 ‘여호와께서 보시다’에 대응. 레아의 ‘눈’을 연상시킬 수도 있음.  
 ‘괴로움’: 남편으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데서 느낀 괴로움.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인들이 아들들을 확보하려는 동기.
- 29:33/ ‘시므온’: ‘들었다(사마)’ - 여호와와의 개입으로 태어난 아들.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르우벤의 출생으로 레아의 목표가 이뤄진 것은 아님.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의 좋지 못한 판단력을 시사.
- 29:34/ ‘레위’: ‘이제 마침내’ -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레아의 좌절.  
 ‘내 남편’: 야곱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함을 암시.
- 29:35/ ‘유다’: ‘내가 찬양할 것이다’
  -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는 강박이 잦아들고 오히려 주님을 높임.
  -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아들들을 얻은 후에 성적인 관심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큼.

## 2) 빌하의 자녀(30:1-8)

- 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 2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 3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 4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5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 6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 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 8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 30:1/ '라헬이... 보고': 야곱의 자녀 출생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여가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가졌던 형제간의 불화의 원인(37:11).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헬의 분노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중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  
'내가 죽겠노라': 리브가의 비탄을 연상시킴(27:46).
- 30:2/ '야곱이... 성을 내어 이르되': 라헬의 요구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분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야곱은 라헬 이상으로 주님의 뜻을 바꿀 능력이 없음.
- 30:3/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사라-하갈의 경우와 같이 대리모를 통해 자손을 얻으려 함.  
'내 무릎에 두리니': 빌하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수용하여 적절한 후계자가 되게 한다는 의미.
- 30:4-6/ '야곱이... 임신하여... 낳은지라': 하갈의 경우에 사용된 관용구. 그러나 라헬은 빌하를 학대하지 않음.  
'라헬이...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라헬이 지음.  
'단': '그가 나를 심판했다, 정당하다고 했다(다니엘)'  
- 단의 출생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여김. 동시에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하나님께 승인하신 것으로 이해.
- 30:7-8/ '납달리': '다툼'. 라헬은 자신이 레아와 충돌하고 있음을 과장되게 설명.  
'크게': '엘로힘' - 일반적으로 큰, 운명적인 등으로 해석.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해석이 가능.  
\*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는 뜻이라면 라헬은 자신의 태를 담은 하나님과 갈등 중.  
- 브니엘 사건의 전조.

## 3) 실바의 자녀와 레아의 또 다른 자녀(30:9-21)

- 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 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 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 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 13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 30:9-11/ '레아가... 보고': 세 번째 단락의 시작.  
'실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사라, 라헬과 같은 전략을 택한 레아.  
- 아들을 낳은 레아가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라헬에 대한 경쟁심 때문.  
'갓': '얼마나 선한 행운인가!'
- 30:12-13/ '아셀': '행복, 복을 받은'.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자녀로 인한 명망이 여성들에게 쌓이는 사회상을 반영(룻 4:14-15).

14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 30:14-16/ ‘합환채’: ‘만드라고라 오피치나룸’, ‘악마의 사과(아랍)’, ‘사랑의 사과(그리스)’등으로 불린 최음제.  
 ‘르우벤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합환채를 라헬이 아닌 레아가 갖게 된 이유.  
 ‘라헬이… 청구하노라’: 요구가 아닌 흥정 수완으로 레아를 달랠(제발 제게 주소서).  
 ‘레아가…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의 불만-남편의 사랑을 독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헬이 야곱과의 부부생활을 통제하고 있음.  
 ‘레아가 나와서… 내게로 들어오라’: 레아의 적극성.  
 ‘내가…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내가 당신을 고용했다’  
 - 야곱은 두 여인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 야곱-라반 가사는 야곱의 수동성이 커져감을 강조.

17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잇사 같이 하였고  
 19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 30:17-18/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합환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로 레아의 소망을 이룸.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지불했다’: 레아는 실바를 통한 출산을 하나님의 승인으로 여김.  
 ‘잇사갈’: ‘나에게 댓가를 지불했다’- 합환채에 대한 암시.  
 - 레아는 거부당한 한 여인의 삶에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함으로 야곱-이스라엘 가문에 기여.  
 - 하나님은 미신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신념을 통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시는 분.
- 30:19-20/ ‘스불론’: ‘선물, 지참금’.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섯 번째 아들을 낳음으로써 야곱의 존중을 기대.
- 30:21/ ‘디나’: ‘심판’. 유일한 딸. 이름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부계사회로써, 디나로 인한 지파는 형성되지 않음.

#### 4) 라헬의 아이(30:22-24)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 30: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기억)하신지라’: 라헬에 대한 주님의 대우에 중요한 역전이 있다는 신호.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은 임신을 위해 계속 기도했음을 암시.
- 30:23-24/ ‘요셉’: \* ‘(수치를) 치우다’. 라헬이 겪었던 불임이라는 사회적 불명예를 씻으심.  
 \* ‘더하다’: 베냐민의 출생을 예고 - 야곱이 가나안을 내다보도록 자극(베냐민은 가나안에서 출생).  
 -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과 더불어 족보를 마침.